

진안군, 청년창업자 지원 나선다

지역정착·일자리 창출 등 위해 임대료·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임대료 지원과 인프라지원 2개 사업이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업장 관련 개선비, 기계장치 구입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7개소를 선발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2천만원이다.

또한 임대료 지원사업은 6개소를 선발하며 월 임대료의 80%까지, 월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6개소를 선발해 연 최대 개소당 2백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2개 사업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만18세 이상~만45세 이하)가 대상이다.

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업종 창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주말 제외) 2주간이며, 농촌활력과 청년지원팀(063-430-8058)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진안군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4월 중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1차 서류심사에서는 7개 정량평가로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2차 면접 평가를 통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7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유망 관내 청년 창업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활력있는 지역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도 5호 선형개선사업 주민 의견 반영

무주군, 실시설계 추진

무주군은 무주읍 내도리 일원의 군도5호(내동지구) 선형개선공사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일원의 군도5호(내동지구) 선형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사진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내동지구 도로 선형개선 사업은 군도 5호 개선 사업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무주 후도마을에서 산의실 마을, 영동군 도계까지 길이 2.27km, 폭 8.0m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 오는 4월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말 또는 5월초 착수해 연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 9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 노선안 선정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

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찾기도 했다. 무주군 권태영 건설과장은 "선형개선되는 군도 5호가 완공되면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실시설계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무주군이 농업 경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국비 50%, 도비 15%, 군비 25%, 농협 5% 부담 5%)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대상이며, 지

역농협에서 작물별 가입기간에 따라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수혜 대상은 사과, 배, 양파, 옥수수, 토마토 등으로 지난해 67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귀리와 양상추, 봄감자 품목을 추가, 확대했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2027년까지 보험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비 5%를 추가

부담하여 농가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줄여 보험료 95%를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 병해와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고 있어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작물 피해에도 안심하고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해 2,472농가를 대상으로 벼, 인삼 등 1,149건에 27억6천여만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 촉구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소멸위기 극복 필요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진안군은 조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부귀중학교까지 아토피 안심학교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알아주는 아토피 치유의 중심에 있다"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토피 치유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귀중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군 입장에서 인구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고등학교의 특화학교 지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옥 의원은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진안군을 견인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통일된 지역브랜드 사용해야"

진안군의회 이우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일 필요성 제안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우라 의원(가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브랜드 활용에 관한 통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역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라는 우수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진안고원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홍보해야만 지역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등 사계절을 대표하는 축제에서도 진안고원 지역브랜드를 통일성있게 접목하여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브랜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경 전 로고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홍보영역과 광고매체에 통일된 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통일된 브랜드 사용을 통해 우리군 고유의 자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영향력 있는 브랜드파워를 견고히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

장수군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장수군은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명(당연직 4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청년발전기금의 계획 수립과 결산 보고서의 작성 등을 심의한다.

청년발전기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에 걸쳐 100억을 조성목표액으로 하며, 조성 첫해인 올해는 25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청년 인구 유출로 고민하는 장수군에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훈 부군수는 "이번 위촉식과 회의가 청년발전기금 조성의 첫 출발의 장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보고회 가져

무주군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본격 승격을 앞두고 무주군 맞춤형 특례 사업을 위한 발굴에 착수했다.

무주군은 13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유호연 부군수, 실·국·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차 보고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총 44건의 특례사항에 관한 추진배경, 특례 반영 및 특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굴된 특례로는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특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및 공원 시설 관리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형 사회적 기업 육성 특례 등이 제시됐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은 전라북도와 함께 성장하는 전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무주 맞춤형 특례사항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무주군 발전을 저해한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특례와 태권도진흥지구 및 산림분야 특례를 발굴해 무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1년 만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진안군은 오는 4월 8일 진안역 시바물관 앞 특설무대(진안읍 단양리 818)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에는 박상철, 장민호, 채운, 정미애, 김현 등 인기가수가 총출동해 신나는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선은 오는 4월 6일 오후 1시 진안문화의 집 2층 마홀에서 열리며 관내 주민은 물론 직장인, 학생, 군인, 사업자 등 생활인구 등도 신청 가능하다.

예심 참가 신청은 3월 15일~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